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

하계



하계

보도	2025.6.18.(수) 조간	배포	2025.6.17.(화)
담당부서	보험감독국 보험리스크감독팀	책임자	국 장 노영후 (02-3145-7460)
		담당자	팀 장 한태진 (02-3145-7466)

'25.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*

* 회사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

1. 현 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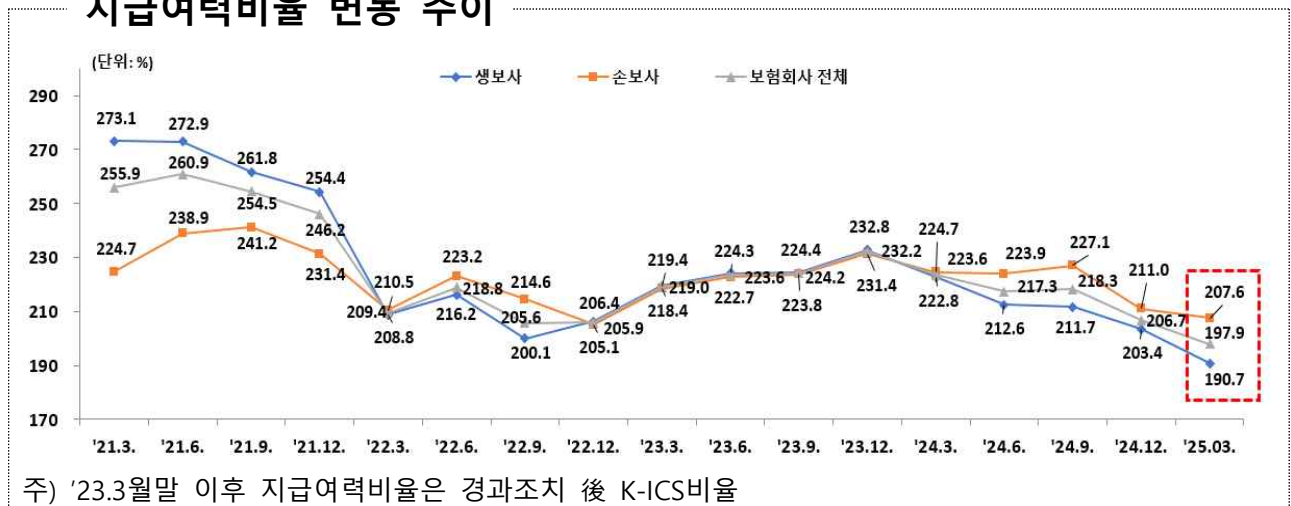
□ (경과조치 後) '25.3월말 경과조치* 적용 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(K-ICS)** 은 197.9%로 전분기말(206.7%) 대비 8.7%p 하락

* 19개 보험회사(생보 12개사, 손보·재보 7개사)가 경과조치 적용 中

** 지급여력비율 = 가용자본 ÷ 요구자본

○ 생보사 190.7%(전분기말 比 △12.7%p), 손보사 207.6%(전분기말 比 △3.4%p)

지급여력비율 변동 추이



<참 고>

경과조치 적용 前 K-ICS 비율

□ (경과조치 前) '25.3월말 경과조치 적용 前 K-ICS 비율은 184.2%로 전분기말(191.3%) 대비 7.1%p 하락

○ 생보사 172.2%(전분기 比 △10.5%p), 손보사 200.9%(전분기 比 △2.3%p)

2. 지급여력비율 변동 주요원인

□ (가용자본 ↑) '25.3월말 경과조치 後 K-ICS 가용자본은 249.3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.3조원 증가

- 금리 하락 및 할인율 현실화*에도 불구하고, 당기순이익 시현 및 자본증권 신규 발행 등으로 가용자본이 소폭 증가

* 최종관찰만기 변경(20년→23년), 장기선도금리 변경(4.55%→4.30%)

□ (요구자본 ↑) '25.3월말 경과조치 後 K-ICS 요구자본은 126.0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5.9조원 증가

- 장기 보장성보험 판매에 따른 장해·질병위험액 증가(+3.0조원) 및 ALM 미스매칭 확대 등에 따른 금리위험액 증가(+1.7조원) 등에 기인

< 지급여력비율 변동 상세 >

(단위: 조원, %, %p)

구 분	경과조치 前			경과조치 後		
	'24.12월말 (A)	'25.3월말 (B)	증감 (B-A)	'24.12월말 (C)	'25.3월말 (D)	증감 (D-C)
가용자본(조원)	245.2	245.6	+0.5	248.1	249.3	+1.3
요구자본(조원)	128.2	133.4	+5.2	120.0	126.0	+5.9
지급여력비율(% , %p)	191.3	184.2	△7.1	206.7	197.9	△8.7

3. 향후 감독방향

□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저금리 기조 지속이 전망되는 만큼 금리하락에 대비한 ALM 관리 노력을 지속할 필요

- 자산 듀레이션 확대 뿐 아니라 부채 듀레이션 축소 노력이 필요

➡ ALM 관리가 미흡한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계획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붙임1

보험회사별 지급여력비율 현황

[생명보험회사]

(단위 : %, %p)

회사명	'24.12월말(A)		'25.3월말(B)		증감 ^{주)} (B-A)
	경과조치 前	경과조치 後	경과조치 前	경과조치 後	
삼성	184.9	-	177.2	-	△7.7
교보	164.2	220.8	145.8	186.8	△33.9
한화	163.7	-	154.1	-	△9.7
신한라이프	205.7	-	189.3	-	△16.5
농협	246.4	437.7	253.9	431.1	△6.6
KB라이프	263.1	-	234.1	-	△29.1
미래에셋	192.4	-	183.3	-	△9.1
흥국	156.9	207.0	153.2	199.5	△7.5
KDB	53.0	158.2	40.6	163.9	+5.7
IBK연금	111.5	234.3	125.0	223.6	△10.7
DB	159.7	208.7	150.5	197.0	△11.7
iM라이프	108.1	190.3	90.5	181.9	△8.4
하나생명	131.1	180.8	138.8	185.3	+4.5
교보플래닛	152.3	192.3	130.1	160.3	△32.0
동양	155.5	-	127.2	-	△28.4
메트라이프	356.4	-	348.8	-	△7.6
AIA	238.6	-	234.8	-	△3.8
ABL	111.8	153.7	104.6	168.0	+14.3
푸본현대	△14.5	157.3	△23.8	145.5	△11.8
라이나	348.2	-	348.2	-	△0.0
카디프	301.4	-	304.6	-	+3.2
처브	149.2	190.4	133.6	173.9	△16.5
전 체	182.7	203.4	172.2	190.7	△12.7

주) 경과조치 미적용 회사는 경과조치 前, 경과조치 적용 회사는 경과조치 後 기준 증감

[손해보험회사]

(단위 : %, %p)

회사명	'24.12월말(A)		'25.3월말(B)		증감 ^{주)} (B-A)
	경과조치 前	경과조치 後	경과조치 前	경과조치 後	
삼성	264.5	-	266.6	-	+2.1
DB	203.1	-	204.7	-	+1.6
현대해상	157.0	-	159.4	-	+2.4
메리츠	248.2	-	238.9	-	△9.3
KB	186.4	-	182.2	-	△4.3
한화	173.8	211.9	182.5	215.8	+3.9
롯데	125.8	154.6	101.6	119.9	△34.7
흥국	154.0	199.6	174.0	216.7	+17.1
농협	149.0	201.6	129.5	165.7	△35.9
MG	3.4	4.1	△15.4	△18.2	△22.4
하나손보	154.9	-	150.1	-	△4.8
캐롯손보	156.2	-	68.6	-	△87.7
신한EZ	159.2	-	340.4	-	+181.2
카카오페이	409.6	-	283.1	-	△126.5
코리안리	191.7	-	195.7	-	+4.0
서울보증	416.3	-	414.4	-	△2.0
AIG	240.6	-	241.3	-	+0.7
AXA	213.0	251.0	217.6	253.7	+2.8
스위스리	263.7	-	203.4	-	△60.4
스코르리	164.1	178.3	166.6	180.1	+1.9
ACE	259.6	-	258.1	-	△1.6
뮌헨리	319.1	-	316.2	-	△3.0
RGA	204.5	-	201.3	-	△3.2
알리안츠	184.4	-	189.5	-	+5.2
퍼시픽리	251.8	-	257.5	-	+5.7
팩토리	306.1	-	411.5	-	+105.3
제너럴리	352.5	-	346.3	-	△6.2
미쓰이	443.3	-	494.6	-	+51.4
하노버리	187.6	-	193.6	-	+6.1
동경해상	767.3	-	437.9	-	△329.5
퍼스트	192.8	-	196.2	-	+3.4
스타	6,181.5	-	4,549.8	-	△1,631.8
전 체	203.2	211.0	200.9	207.6	△3.4

주) 경과조치 미적용 회사는 경과조치 前, 경과조치 적용 회사는 경과조치 後 기준 증감

가.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과조치**① 既발행 자본증권에 대한 경과조치(TFI)**

- 제도시행 전 기발행 신종자본증권·후순위채권은 K-ICS기준 상
가용자본요건 未충족 시에도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

② K-ICS 업무보고서 및 공시 기한 한시적 연장(~'24.9월말)

- K-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1개월 연장
(분기결산 : 3개월 이내, 연결산 : 4개월 이내)

나.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경과조치 : 적용기간 최대 10년**③ 시가평가로 인한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(TAC)**

- 시가평가에 따른 자산감소 또는 부채증가 영향(가용자본 감소효과)을
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

④ 신규도입 보험위험액에 대한 경과조치(TIR)

- 신규도입 위험(장수·해지·사업비·대재해위험) 측정으로 인한 보험위험액
증가효과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

⑤ 주식위험액 증가분에 대한 경과조치(TER)

- 리스크 측정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주식 위험액 증가효과를 일시에
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

⑥ 금리위험액 증가분에 대한 경과조치(TIRR)

- 리스크 측정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금리위험액 증가효과를 일시에
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

※ 경과조치 관련 세부 내용은 23.3.14.(화) 조간 보도자료 '新지급여력제도(K-ICS) 경과
조치 신고 접수결과, 19개 보험회사가 신청하였습니다' 참고